

# 전주 핸드메이드, 이태리에서 뽐내다

### 전통문화전당, 피렌체 국제수공예 박람회 참가... 관람객들에게 수공예품 선보여

전주 핸드메이드 상품이 세계적인 국제 수공예도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 가치를 뽐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0일간 이탈리아 피렌체 포르테짜 다버소에서 개최되는 '2017 피렌체 국제 수공예 박람회'에 참가해 전주의 우수 수공예품을 해외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핸드메이드(Handmade)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국제 수공예박람회'는 1981년 시작돼 올해로 81회째를 맞고 있는 행사로, 세계 50여 개국, 800여 업체, 12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수공예분야 세계적인 박람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전당은 지난해 전주의 명품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무형문화재 수공예품을 직접 시연 등 전주 수공예품의 우수성을 선보여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전당은 전주가 '핸드메이드 시티'(Handmade City)로 나아가기 위한 차원에서 전시 위주의 행사를 비중을 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공예품



이탈리아 피렌체 포르테짜 다버소에서 열린 '국제 수공예 박람회' 전시회장에서 관람객들이 전주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판매와 공예인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수공예품의 직접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고,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인들에 직접 평가를 받는 데 행사의 방점을 찍었다.

전당은 박람회 참가를 위해 전주한지를 소재로 한 49종품 2천210여점의

수공예품을 현지에서 전시하고 판매도 진행, 상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제 전주한지를 만져보고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무료체험프로그램도 진행,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당은 박람회와 함께 전주지역 수공예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박람회 기간 '피렌체 공예공방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당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전주지역 수공예 작가 8명을 선정 한 바 있다. 선정 작가들을 대상으로 피렌체 현지의 우수 핸드메이드 공방 5곳과 피렌체 수공예를 이끌고 있는 아트텍스(ARTEX) 수공예센터 등 2개소를 방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수공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박람회 진행을 담당할 핸드메이드팀 조영범씨는 '박람회 첫날부터 이탈리아 현지 방송사, 일간지 등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시된 전주의 우수한 수공예품에 대해서도 많은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직접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태수 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수공예품이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해외 판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전주가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핸드메이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피렌체 박람회 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새만금서 '죽음의 질주' 광란쇼

### 전주지검 군산지청, 운전자들 무더기 불구속·약식 기소

불법 개조한 차량과 슈퍼카 등으로 군산 새만금방조제에서 시속 350km에 달하는 죽음의 레이싱을 벌인 운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혐의로 개인사업자 A(3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원 B(45)씨 등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자동차경주에 참여한 차량을 튜닝해준 정비업자 C(34)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새만금방조제 도로에서 드래그레이싱 같은 방식으로 불법 레이싱

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정비업자들은 행정당국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의 의뢰를 받아 차량에 설치된 소음방지기와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떼어내는 등 불법 튜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가의 외제차 성능을 과시하며 주말마다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적인 경주를 벌여왔다"며 "개인적인 재미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장현 기자

# 경찰, '뇌물 의혹' 남원시청 공무원 2명 압수수색

### 하드디스크·휴대전화 등 확보

전북 남원경찰서는 전남인 25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공무원 2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건축사업에 대해서 설계에 맞지 않는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 눈감아 주고 뇌물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연관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수사 진행 단계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군산서 5만원권 위조지폐 발견

군산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5매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군산경찰서는 오후 1시 13분께 군산 나운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위조지폐를 발견한 김모(30,남)씨는 해당 지점 자동출금기에서 입금이 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민근 기자

# 노동청서 난동피운 4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이며 간병료를 달라한 황모(47)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5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의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가 자신의 간병의 지원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정당한 간병인 지원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끈하게 뺨방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민근 기자

# 태권도 파워블로거 '태권대사' 자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유명 파워블로거가 한데 뭉쳤다.

전북도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파워블로거 18명을 초청해 무주, 장수 일원에서 팸투어를 실시했다.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축제를 두 달여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팸투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권도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 기간 동안 전북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보내 관광자원의 매력을 홍보하고자 진행됐다.

팸투어 1일차에는 무주태권도원을 방문해 태권도시범단의 공연 관람 및 태권도박물관 견학, 태권체조 체험 등을 통해 무주WTF 세계태권도

세계태권도대회 앞두고, 블로거 18명 초청 무주 등에서 팸투어 가져 한 참가자 "많은 사람들이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노력"

대회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태권도원 인근의 진원반디길 마을을 찾아가 찜질, 들레길 탐방 등을 통해 전북 농촌마을의 매력과 정취에 흠뻑 빠졌다.

태권도시범단의 역동적인 공연을 관람한 한 파워블로거는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하니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샘솟았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를 방문해 태권도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당

분간 태권대사(태권도 홍보대사)로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장수승마체험장을 찾아 직접 승마를 체험하고, 논개사당과 논개생가마을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팸투어를 마무리했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파워유저들로, 이들이 남긴 체험후기는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백석서 홍보기획과장은 "온라인에서 영향력이 높은 파워블로거의 전북 여행 후기는 전북의 매력을 널리 퍼뜨리는 '여행바이어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대회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무주를 찾아 태권도는 물론이고 전라북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중기·소상공 융자지원... 최대 3억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04억원(제조업 74억, 소상공인 10억, 청년기업 20억)을 운용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며,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소상공인 2000만원 이내)까지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대출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에 접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TBN 전주교통방송, 자전거 이용 확산 '맞손'

전주시와 TBN 전주교통방송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26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상규 TBN전주교통방송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날로 증

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주차난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전주교통방송 'TBN 매거진(교통플러스)' 코너를 통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동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